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순수와 열정의 '70년대 광주

내가 리어카를 불러 이사가던 상황을 말했을 것이고 경찰들은 노량진 일대의 리어카꾼을 모조리 탐문한 것이었다. 나는 후회로 가슴을 쳤다. 왜 리어카를 이용했인가. 그러나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관악서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나를 축제데모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학생과 짝새가 같이 뒤엉켜서 데모를 하는 판이었으니 내 얼굴이 알려졌을 것이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축제 데모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만한 증거도 없었다. 양관수와와 공모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었으나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나는 끝까지 단순 가담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나는 또다시 관악서에서 풀려 나왔다. 그러나 10월 26일자로 양관수와 함께 제명되고 말았다. 나는 무덤덤히 영문과 친구들과 작별하고 학교를 나왔다.

의도되기는 했으나 준비되지 않았던 10.15 감골마당 축제데모는 당시에 준비되고 있던 74학번 양춘승, 김천우, 박찬우의 데모를 지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김창우가 준비하고 내가 포함되었을지 모르는 2차팀을 와해시켰다. 1차팀의 박찬우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들은 계획을 취소하고 잠수했던 것이다. 나는 제명된 후 학원 근처에서 김창우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내가 연행되고 제명된 이상 그 역시 몸을 감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데모에 대한 희망이 잦아들 무렵, 12월 8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법대 졸업반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의 데모가 터졌다. 이로써 76년 2학기는 저물고 방학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군에 소집되어 귀향하였다. 김창우는 후에 77년 4월에 고려대와 연루된 사건으로 노출되어 구속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숨가쁘게 노래 연습을 하며 달려 왔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노래 부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만 형국이 되었다. 이때의 일은 나중에 74학번 동료들이 대거 구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 속에 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리잡았다.



정용화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74학번. 광주매일신문 논설위원,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이사(현),
광주전남한반도포럼 공동대표(현)

70년대에 대하여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작성자 정용화 개인의 197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리고자 한다. 실제 자료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30여년이 지난 일들을 기억에 의존해 서술했으니 시간과 장소 및 이름 등에 대한 정확성은 좀 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보강되어야 한다.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개인사 및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복원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1970년 3월, 광주일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용화(통합48회)는 이미 그해 2월 고교 1년 선배인 오국영(일고 통합47회, 나중에 학생회장에 피선됨), 이훈우(47회, 졸업 뒤 전남대학교 상대에 재학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됨, 현재 한겨레신문사와 관련된 회사에 재직) 등에 의해 광주일고 교내 독서모임인 '향토반'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독서발표를 위해 읽은 책이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인 것으로 기억된다.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역사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대학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 다음 앙드레지드의 <전원교향악>, 헤르만헤세의 <신달타>,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읽어가면서, 철학과 종교,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나가기 시작했다.

1970년 5월, 당시 장준하 선생이 발행인인 <사상계>에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라는 풍자담시가 실리면서 세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용화는 모임의 선배인 고유문(36회), 고현석(36회:곡성군수), 강삼석(39회:전 전남대 학병원장), 김민영(39회:법안법사), 조영호(39회:전 한겨레신문), 박경호(40회:유흥양행), 문평기(41회), 김희택(44회: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영신(44회:사업), 박영규(44회:광주지방국세청), 이양현(44회:송촌건설), 정상용(44회:전 국회의원), 주석중(44회:전남대 교수), 고아석(45회), 김도연(45회), 김태수(45회:세무사무소), 김태승(46회:아주대 교수), 최 철(46회:사업), 권오걸(47회:사업), 송종현(47회:사업), 양태열(47회:사업), 오광호(47회:충북대 교수), 이길동(47회:고인) 등, 서클의 많은 선배들에 의해 세칭 ‘의식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중 나의 기억에 남는 선배는 김민영(39회) 선배와 김태승(46회)선배인데 이들이 역사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주석중(44회) 선배가 1971년 여름인가에 가르쳐준 노래, 존바이에즈의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곡과 가사는 그 여름 이래 지금까지도 웅얼웅얼 중얼중얼 읊조리며 살아오고 있다.

광주일고 ‘향토반’은 1960년 4.19이후 거세게 불어 닥친 농촌연구 활동(내가 붙인 명칭으로 ‘신 상록수운동’)에 부응코자 통합38회 백이호, 양정화, 이재형 선배 등을 주축으로 36회 선배들을 불러들이고,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학생회 활동에도 열심인 학생들을 끌어모아 광주일고 교내 서클로 태동했다고 전해진다. 이 모임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며칠씩을 농촌연구 및 봉사활동에 할애하며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독서발표와 토론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갔다. 당시 ‘향토반’은 ‘영어회화반’, ‘문예반’ 등과 같이 1주일에 한번 있는 공식적인 특별활동 부서로 인정되어 있었다.

1971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이날도 ‘향토반’은 독서발표를 위해 수업이 끝난 뒤 6~7명이 모여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광주일고 학생과장인 김국원(국어) 선생을 비롯한 학생

과 교사 5~6명이 모임장소를 급습해 양태열, 오광호, 권오걸, 정용화 등을 교무실로 끌고가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뺐다. 교사들은 시계를 풀고, “야, 빨갱이같은 놈들이! 너희들 배후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다짜고짜 주먹질과 발길질로 학생들을 두들겨 뺐고, 갖은 욕설로 학생들을 욕박질렀다. 어안이 병병한 학생들은 별 대꾸도 못하고 흠뻘 두들겨 맞은 뒤 눈자위 등이 통통 부은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두들겨 맞은 이유는 간단했다. “앞으로 불온한 독서모임을 해체하러”는 것이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 있는 특별활동 시간에도 ‘향토반’은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여하튼 청천벽력이었다. 두들겨 맞은 것은 사제시간에 그럴 수 있 다손 치더라도, ‘빨갱이’ 운운과 ‘불온한’은 어찌된 영문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향토반’ 출신의 선배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학생운동 등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후일에야 알았지만, 그래도 당시 고교 2학년인 정용화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조금은 멍청해질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찌 된 판이냐?”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향토반’은 공식 특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었고, 모임 이름도 선배들이 애칭으로 불러온 ‘광랑(光郎)’으로 바꾸기로 하고, 스스로를 ‘광랑도(光郎徒)’라 불렀다.

사건이 난 지 일주일 만인 1971년 4월 24일 토요일, 제7대 대통령후보인 김대중 씨의 유세가 있어 참석했다. 광주 공설운동장(지금의 무등경기장)이었던가?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의 일기 메모에는 “우리 학생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만 만족해야 하는가? 비판을 가하거나 수정안을 내놓을 수 없는 학생의 입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조용히 현실을 통찰할 뿐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해 7월 1일(목요일), 삼선개헌과 부정선거의 후유증으로 얼룩진 정국 속에서 박정희 씨가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광랑’은 1971년 여름방학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3일 간에 걸쳐 연탄장사, 수박장사, 고물장사 등으로 경비를 모아 3박4일 동안 ‘농촌연구 및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학교 밖에서 선배들과 함께 독서발표 및 토론활동을 계속했다. 1971년 9월 15일 수요일 방과 후, ‘광랑’ 회원들은 광주 총장로 관음사에 모여 김민영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의 일기 메모에는 김민영 선배의 이야기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쓰여있다. “... 국사학자가 배부른 세상이 와야 한다. 특히 실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부의 것을 감쌀 수 있는 내부의 것을 확립하

자...”. 요즈음 ‘독도문제’를 보면서 그 당시 왜 김민영 선배가 “... 국사학자들이 배블러야...”라고 운운했는지 알 듯도 하다.

1971년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01시 25분, 광주MBC 라디오방송에 느닷없는 내용이 흘러 나온다. “... 젊음의 폭발이 있으리라. 가슴에 못을 박으며... 어느 소년이 김국원 선생과 함께 듣고파...”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 김국원 학생과장에게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괜한 흥분에 들떴다. 당시 나의 일기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시 같지도 않은 시가 적혀 있다.

< 실 2 >

순간적이었다.

소음이 끊어졌다.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눈을 감는다.

삶에 저항하여

고요를 쟁취하는 것이다.

깜깜하다.

마음이 찢어진다.

님의얼굴이 찢어진다.

고요하다.

발약은 또다시 고요를 부순다.

온누리가 흐트러지고

폭소가 깨어진다.

아마도 학생과장 김국원 선생에게 구타를 당할 때 멍한 순간을, 그리고 귀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감지하면서 감정이 폭발쳐서 썼던 메모가 아닌가 생각된다.

1972년 6월 21일 수요일 오후, 점심시간부터 일곱째 시간까지 학생회장인 이기상(48회)과 신중하게 학생과장 김국원에 대한 축출문제를 논의했다. 정용화는 당시 3학년으로서 학생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날 밤 1차 주동자 13명을 소집해 ‘민주적 교육풍토 조성’과 ‘폭력교사 축출을 위한 성토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당시 성토대회 주동자는 이기상(당시 학생회장), 송용일(부회장:고인), 정용화, 김기정, 김요왕, 김영채(현 교사), 김용구, 박성환, 신쌍식, 장병우(현 판사), 정태석(현 광주은행장), 조장현(현 언론인), 최동남(현 이시어나항공) 등이다.

정용화의 일기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6월 22일 목요일 “점점 구체화되다. 머리 좀 쓰다. 김요왕, 조장현, 이기상과 나, 빗겨서 기상이 집에서 자다.”

6월 23일 금요일 “산수동 박성환의 자취집에 모이다. 진전이 있었다. 입시교육의 비대화와 전인교육의 결핍 등을 내용으로 선언문과 격문 작성하다.”

6월 24일 토요일 “마지막 마무리. 월요일 날 ‘방공훈련’한다고 해서 실망이 크다. 비가 오기를 바란다.”

6월 25일 일요일 “1차 주동자 13명과 후속 주동자 15명 등 28명이 화정동 피정원타에 모여 서명하다. 선언문(격문, 결의문 프린트 완성, 어깨가 빠근하면서도 기쁘다. 녹음기 두 대 빌리고, 권대웅과 함께 앰프 시설 등을 밤늦게 아무도 몰래 강당에 설치하다.”

6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오늘이다. 전자메신기처럼 움직이는 주동자와 학생들, 그 함성! 그 무엇보다도 뿌듯했던 그 함성! 가슴이 막한다.”

당시 광주일고 3학년 학생 6백여 명은 6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강당을 점거한 채 ‘민주적 교육풍토 조성’과 ‘폭력교사 축출을 위한 성토대회’를 가졌다. 그 결과 당시 김해중 교장선생님과 김국원 학생과장이 전출되고, 주동자 13명이 모두 무기정학을 받았다. 정용화는 무기정학을 받은 뒤 당시 연대장을 맡고 있던 김영채와 지리산에 올랐다. 압록에서 1박을 하고 노고단 숙영지에서 두 번째 밤을 새고 난 뒤 동이 터오는 새벽, 발아

래 깔린 운해를 바라보면서 모퉁이 송연하리만치 '자연에 대한 외경'을 몸서리치며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정용화의 일기메모에는 아무런 논평없이 10월 유신을 적어 놓았다.

“... 1972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비상비업 선포 2개월 시한부 개업령. 1) 의회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헌법 헌법 일부 중지. 2) 중지된 헌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3)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 4) 연말이내 헌정질서 정상화. - 대통령 박정희 - (포고문 제호) (1) 정치활동 목적의 유내외 집회금지. (2) 언론, 출판사건법. (3) 각 대학 휴교. (4) 직장이탈 금지(유연비어 금지). (5) 영장없이 구속 등등. - 육군대장 노재현 - ...”

으스스하고 살벌한 판이 되었다. 유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선배들과 만나 독서모임을 가졌으며, 시국에 관한 토론들을 경청했다. 그러나 머리도 뒤숭숭하고 공부도 엉망이 되었다. 1972년 하반기를 거의 고뇌 속에 허둥지둥 보내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나는 1973년 재수를 하면서도 전남대학교 휴학생이라며 전남대학교를 들락거리면서 선배들과 어울렸다. 그 당시에 이미 '광량' 이외의 많은 선배들과 만나게 되었다. 조흥규(36회: 전 국회의원), 이홍범(40회:사업), 윤한봉(41회), 김병철(42회), 송정민(42회:현 전남대 교수), 김상윤(42회:사업), 윤보현(45회:현 교사), 최연석(47회:현 목사) 등 많은 선배들은 물론, 민청학련을 준비하던 윤강옥(동신고, 당시 전남대 사학과 재학중)선배와 연결되어 1974년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선배로는 살벌하고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사이먼과 가펩클'의 '험한 세상에 다리 되어'라는 팝송을 목청 높여 함께 부르면서 가르쳐 준 윤보현과 최연석 선배가 특히 뇌리에 남는다.

1973년 12월 즈음과 1974년 1월, 2월, 3월은 그룹별로 거의 매일 만나면서 1974년 봄을 준비했다. 나는 주로 광주 풍향동에 있는 윤강옥 선배의 집이나 그 근처의 주막에서 윤강옥 선배와 만나 서울과 광주의 돌아가는 준비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1974년 3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간 정용화는 거의 매일 선배들과 접촉하며 민청학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월 말 인가 4월 초에 윤강옥 선배로부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야, 용화야. 사전에 발각이

되어 모두들 잡혀가고 있다. 너도 얼른 튀어라!” 나는 바로 휴학계를 내고 주위 눈치를 살피며 집과 학교를 오가는 신세가 되었다. 민청학련 전남대학교 집회의 디-테이가 4월 3일이었던가? 정용화는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금호각(당시 전남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서 대기했으나, 끝내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몇몇 선배들이 연행된 상태였고, 당일 스쿨버스에서 유인물을 뿌리다 거의 대부분 연행된 상황이라 계획했던 교내의 대규모 집회는 불발로 막을 내렸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던 나는 근질거리는 뒤통수를 굶적이며 그해 6월 육군에 입대했다. 입대한 뒤로도 뒤통수가 계속 근질거리 안절부절 못하고 군대생활을 했다. 논산훈련소를 거쳐 배치된 부대는 '운명의 장난'처럼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에게 지독하게 굴었던 서울 거여동의 '3공수 특전여단'이었다. 1975년 2월 15일 민청학련 관련 선배들이 석방되고 서야 뒤통수가 덜 근질거렸다. 휴가를 나와 광주에서 윤강옥 선배를 상면하고, “진술과정에서 너는 완전히 뺏다”는 윤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매우 송구스러웠다. 그해 8월쯤 정용화는 청와대로 파견근무를 나갔으며, 청와대 경비 및 대통령 노출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실 66지역대 요원이 되었다.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신원조회를 엄격히 하였는데, 육사를 나와 현역군인이었던 형이 있었다는 것이 무난이 통과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여하튼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비교적 많이 나올 수 있었다. 그때 서울지역의 여러 선배들은 물론, 특히 민청학련으로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나온 광주일고 선배인 선정식(42회), 김희택, 나병식(44회), 문국주(47회), 이우회(47회), 최연석, 최권행(47회) 등의 선배들과 많이 어울리며 지냈다.

1976년 봄인가, 여름인가? '광량'의 이양현, 정상용 선배 등이 청와대로 면회를 왔다. “독재자 000를 제거하자”는 제의를 했다. 골치가 매우 아팠다. 휴가를 내어 광주에 내려가 김남주(42회), 김정길(44회), 이양현, 정상용 등의 선배들과 '계획의 비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의 희박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그 계획은 보류됐다.

1977년 4월, 34개월만에 만기제대한 정용화는 곧바로 복학하지 않고, 김상윤(42회) 선배를 주축으로 하는 여러 스터디그룹과 어울리면서 이강(광주고졸, 민청관련), 나상기(사레지 오고졸, 민청관련), 박형선(45회, 민청관련), 이기승(46회, 민청관련), 유선규(47회, 민청관

런), 조봉훈(순천고졸, 전남대 농대), 박현옥(전남여고졸, 전남대 영문과), 이세천(사레지오고졸), 노준현(50회, 전남대 공대: 고인), 문승훈(50회), 박몽구(50회), 신일섭(광주고졸, 전남대 사학과), 김선출(51회), 안길정(광주고졸, 전남대 영문과), 김윤기(51회) 등 선후배 제현들을 두루 만났다. 김남주(42회) 선배가 일어판으로 감독하는 '파리꼬문팀'에서 공부하다 급기야 당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에 끌려가 3일정도 심한 공갈과 협박에 시달리다 나왔다. 김남주 선배는 그 길로 도피해 1979년 가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1978년 3월에야 전남대학교를 복학한 정용화는 양강섭(광주고졸, 전남대 영문과)과 박관현(광주고졸, 전남대 법대) 등과 어울리면서 '대학생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을 심하게 벌였고, 후배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모리스 등의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영문판)> 등의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후배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터지자, 대학 안팎에서 공부해 오던 선후배 제현들이 모두 총동원되어 노준현(50회, 전남대 공대), 정용화를 주축으로 6월 29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점거농성 및 광주시내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7월 3일까지 격렬하게 벌어졌다. 거의 대부분의 주동학생들이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 수감되었으나, 나는 김좌윤(48회, 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카며, 여수의 김영신 선배, 부산의 송근석 씨(공수부대에서 만난 상급자), 서울의 김현준(48회, 현 교사), 김삼수(광주고졸, 현 대학교수) 등 친구들의 도움으로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그 후 약 1개월 15일 만인 8월 15일 서울 비원 뒤 원서동의 김정기(48회), 김규성(48회)의 자취방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고 각각 2년6개월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받고 복역했다.

1979년 7월 17일, 1년여 만에 집행면제로 석방된 나는 자연스럽게 윤한봉, 김상운, 김희택 선배 등과 함께 청년사회운동에 뛰어들었고, 부마항쟁과 10.26 이후 '전남민주청년협의회 회장'과 현대문화연구소장을 겸임하면서, 암울하고도 씩씩한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게 된다.

전남민주청년협의회는 민청학련 출신 선배들이 1975년 2월 15일 석방이후 '광주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해오다 긴급조치9호 위반 학생들이 양산되자, 1978년께 전남민주청년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이며,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는 조성우, 양관수 선배 등의 주도하에 '민주청년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현대문화연구소는 1979년 초반 전남민주청년협의회 의 근거지로서 광주시 동구 장동 소재 연합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었다. 이곳은 서울과 광주의 정보교환과 여러 부문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화운동의 태동과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선배들은 농민운동에 이강(광주고졸, 전남대 법대), 박형선(45회, 전남대 농대) 선배 등, 노동운동에 이양현 선배 등, 기독교청년운동에 나상기(사레지오졸, 민청학련출신), 최철(46회, 전남대 농대) 선배 등, 학생운동 지도에 김상운(42회, 녹두서집), 김정길 선배 등이 맡아 활동했다. 전체적인 연결을 위한 청년사회운동 부문에 윤한봉 선배와 정용화, 임영희 등이 배치되어 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찌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녔는지, 나 스스로도 신통할 지경이다. 그제 정열이었는지, 열정이었는지, 또는 분노였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순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슴과 마음'을 지니고, '인간주의(휴머니즘)'에 기초했었다는 것은 말하고 싶다. 결코 낭만적 휴머니스트만은 아니었노라고... 그렇게 70년대를 보내고, 또 1980년대를 정신없이 보냈다.

시대상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술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 믿고, 그냥 개인적 경험들을 들춰내 보았다. 이제 굳이 할 말도 별로 없는 시점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빌 뿐이다.